

## 한일국교정상화 60 주년, 日수도권 중고생 한국어 말하기대회 - 2003 년 대회개최이래 최다 응모 기록 -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은 수도권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인 「함께 말해보요. 한국어」 도쿄·중고생대회를 2 월 8 일(토) 한국문화원 한마당 홀에서 개최했다.

2003 년 대회 시작 이래, 최다응모 수 (237 명)를 기록한 이번 대회에는 1 차 심사를 통과한 44 팀 148 명의 중고생과 지도교사, 가족들 등 300 여명이 참가하였다.

‘음식궁합’을 주제로 한 대본에 창작을 더해 2 인이 촌극으로 발표하는 ‘스킷부문’과 4 가지 사진(다리, 학교, 스포츠, 자유 사진) 중에 하나를 골라 본인의 평소 생각이나 경험담 등을 발표하는 ‘스피치부문’으로 나뉘어 그동안 같고 닳은 한국어 실력을 뽐냈으며 일본 고등학교의 한국동아리도 대거 참여하여 K-POP 댄스를 선보였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떡볶이와 튀김이 찰떡궁합이듯이 일본에서는 우동과 튀김을 같이 먹는다”며 한일의 음식궁합이 좋은 요리를 촌극으로 소개한 혼다 마히나·다미야 루나 (도쿄학예대학부속 국제중등교육학교 6 학년) 양이 관객과 심사위원을 매료시키며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주일한국문화원 공형식 원장은 ‘한일국교정상화 60 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에 이렇게나 많은 중·고등학생이 참가해 감회가 새로우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한일 양국의 보다 밝은 미래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개최 소감을 전했다.

본 대회의 결승 무대인 「함께 말해보요 한국어 고교생전국대회 2025」는 도쿄와 오사카를 비롯한 7 개 도시 지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고교생이 모여 오는 3 월 8 일(토) 문화원 한마당 홀에서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행사 전경

<담당연락처 : 민병욱(행사) / 조은경(홍보) ☎ +81-3-3357-5970 ✉ pr@koreanculture.jp>